영재교육으로 지역의 미래를 밝힌다

고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개강 … 수학 · 과학 중심 프로그램 운영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초계 학생수련장에서 초등학교 영재교육생 40명과 학부모 및 지도교사, 초등학교 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재교육원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은 영재교육원생 입학허가 선언과 지도교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학부모 연수, 오리엔테이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재교육원은 수학 ·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반별 프로젝트 학습 운영, 현장학습, 영재캠프 운영, 강원창의산출물 발표회 참가 등의 프로그램을 연중 127시간 운영한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영재교육원 개강식을 가졌다.

김경로 고성교육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모교와 아야진 발전 위해 건배"

아야진초교 재향 · 재경총동창회 워크숍 개최

아야진초등학교 총동창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 토성면 아야진1리 소재 아야진리조트에서 재향 · 재경 총동창회 임원 및 운영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총동창회에는 재경총동창회 김주일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운영위원 30명과 지역거주 재향총동창회 김종완 회장 및 임원, 운영위원 40명이 참석했다.

또 아야진초교 출신인 지승연 재경고성군민회장과 김장민 아야진초교 운영위원장, 이선국 죽왕면장, 최을규 재경고성군민회 수석감사 등이 참석해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야진초등학교 총동창회는 지난달 26일 아야진리조트에서 재향 · 재경 총동창회 임원 및 운영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앞으로 모교 발전과 아야진 마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승근 기자

□최임식 제7대 강원초등체육연구회 회장

학교별 육성종목 효율적 배치

체육교사 처우개선 · 정보교류 노력

간성초등학교 최임식 교장(59세, 사진)이 제7대 강원초등체육연구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강원초등체육연구회는 지난달 23일 횡성교육청 대회의실에서 17개 시 · 군 회장 및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최임식 교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최임식 회장은 "각 학교별 특성있는 육성종목을 효율적으로 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앞으로 초등체육 발전에 힘써 주길 바란다는 뜻으로 추대된 이상 초등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특히 운동부 체육교사들의 편의와 처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강원초등체육연구회는 정기적 모임을 통해 정보공유 및 체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개최해 화합과 친목으로 우의를 다지고 있으며, 체육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다음해 우승팀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어 지역 알리기에도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강원초등체육연구회는 특히 7년간 연구회를 통해 축적된 체육기술 노하우를 모아 조만간 '경기지도사례 및 법규책'을 발간 해 보급 할 예정이다.

강원초등체육연구회는 회원이 700여명 활동하고 있다.

최 회장은 고성출신으로 고성중(12회) · 고(11회)와 춘천교대를 졸업했다. 속초시테니스연합회장, 고성군 춘천교대 총동창회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은 이정희(55세)씨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박승근 기자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5]

고성지역 의병 권석근(權錫根)

1886년 ~ 1907년 11월 4일

강원도 고성군(당시, 杆城郡) 수동면(水洞面) 하정월리(下汀月里) 사람이다. 김옥배(金玉培) 의진에 가담하여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일제에 의해 자주적 외교권이 박탈되고, 이듬해 1월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어 국왕의 통치권이 현저하게 손상되는 국망의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렇게 되자 우리 민족은 본격적인 반일 국권회복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당시 그것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장기적인 실력양성운동으로 신문과 잡지를 통한 언론 활동, 종교와 그 단체를 통한 계몽 활동, 각종 학회와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활동, 국어와 국사 연구를 통한 학술 활동 등 각 방면의 국민계몽운동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그것은 1907년 7월 『정미7조약』에 따른 군대해산으로 해산군인들이 대거 의병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국민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 같은 시기인 1907년 권석근은 국망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김옥배 의진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김옥배 의병장의 지시에 따라 이덕근(李德根)과 같이 고성군 일대에서 일본군 수비대의 동정을 정탐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같은 해 11월 4일 오후 1시 일본 헌병대(장전순사주재소)에 피체되어 총살의 형에 처형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出典 : △韓國 獨立運動史 資料(國史編纂委員會) 第8輯, P,90(의병편 1) △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Ⅳ) (光復會江原道支部, 2004.12.) P,93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